

학교 무선망 추가 구축

도교육청, 미구축된 특별교실 등 공·사립학교 514곳 지원... 50여억원 소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무선망 추가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선망이 미구축된 특별교실과 다인수학급의 무선 접속 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공간 제약 최소화를 통해 스마트한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무선망 추가 구축을 희망하는 공·사립학교 514개교, 2,598실

을 대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AP와 동일한 기준 구입 및 케이블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총 소요 예산은 50억7,000여 만 원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만 1,494실에 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 2020년 초·중·고 및 특수학교 772개 교에 1만7,629대를 보급했고, 2021년에는 공립유치원 317개원에 1,316대를,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립유치원 122개 원에 1,120대를 보급했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무선망이 미구축된 특별교실이나 무선망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교 내 모든 학습 공간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아동센터 종사자들과 만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도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은 지난달 30일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경제적 지원 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40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2차년도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지만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작년 20개소에서 40개소로 늘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완주군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아동의 변화와 성장이 눈의 띄게 나타났다”면서 “올해 역시 이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왼쪽)이 3일 우석대학교를 찾아 남천현 총장을 예방하고, 한국장학재단 추진 사업과 인재 육성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대학생 등록금·주거비 부담 경감 중점 추진”

배병일 장학재단 이사장, 우석대 찾아 현장 소통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이 3일 우석대학교를 찾아 남천현 총장을 예방하고 한국장학재단 추진 사업과 인재 육성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남천현 총장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집중돼 일자리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의 곳곳에서 미래 발전을 견인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다양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에 배병일 이사장은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월 재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배병일 이사장은 영남대 법학과 학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 강릉원주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한국가톨릭교수협의 회장·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영남대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안전교육 실시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근상)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북도청어린이집, KOAT새싹어린이집 등 3개의 보육사업 민간위탁 수탁운영체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각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주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 교육은 운영안 교수(응급구조학과)가 8편이인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도폐쇄, 안전관리와 전염병관리,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교육했다.

보육사업단 송화진 단장은 “민간위탁 운영체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북도청어린이집, KOAT새싹어린이집 등 3곳으로 지역 내 아동정책 실현을 위한 보육·교육과 함께 직무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사각지대에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지역기반경영역플링사업단은 지난달 3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지역기반경영역플링사업 산학협력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지역기반경영역플링 산학협력 워크숍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 대학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 지역기반경영역플링사업단(단장 김효진)은 지난달 3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지역기반경영역플링사업 산학협력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8개 기업 대표와 임직원 사업단 참여교수 및 학생 등 모두 45여 명이 참석했다. 가운데,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과의 협약 및 발전기금 전달식과 CEO 아카데미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대표 김해영)은 지역기반경영역플링사업단에 일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주로 전주시 관광 활성화와 공모전 장려금 및

지역기반경영역플링사업 운영에 쓰인다.

한편 대학산학협력사업은 기업·대학·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실업 및 구인·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전라북도 교육협력추진단에서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이 중 전주대 지역기반경영역플링사업단은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물류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성교육, 실무 자격증 비학점 교육과 현장실습, 전공팀 프로젝트 등을 지도해 참여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3일 전북대학교 후생관에서 2023학년도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와 함께하는 천원의 아침밥 행사가 열렸다.

“부담 없어 좋아요” | 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본격 시작

11월 30일까지 124일동안 조식 제공

“부담 없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 사업은 총동창회에서 12,200여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줬던 아침 식사 지원사업에 정부 지원이 더해져 확대·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3일 자정부터 애플(초미)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식권이 판매됐는데, 시작 19분 만에 매진됐다.

특히 이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양오봉 총장과 정영택 총동창회장은 이날 직접 학생들과 아침을 함께 먹으며 격려했다.

이날 아침밥상에 나온 첫 메뉴는 버섯영양밥과 콩나물국, 떡갈비조림, 치킨샐러드, 누룽지 등이었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북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4일 동안 매일 아침 1,000원에 조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 끼 당 4,500원 기준으로 학생 1,000원, 정부 1,000원, 대학 2,500원을 지원한다.

전북대는 총동창회와 발전지원재단,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하루 100명인 수혜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날 학생들과 함께한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을 추진했는데, 이번 사업 선점으로 우리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아침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택 총동창회장은 “몇 년 전부터 후배들에게 아침을 먹고 싶다는 부모 마음을 가진 선배 동문들이 마음을 모아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확대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창회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천원의 아침식사를 한 양수정 학생(회계학 4년)은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메뉴도 훌륭했다”며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메타버스·웹3.0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전북대-서강대,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학장 허강무)은 지난달 31일 메타버스 및 웹 3.0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원장 현대원)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메타버스와 웹3.0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메타버스와 웹3.0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차원의 교류와 협력, 메타버스와 웹3.0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 협력지원 △메타버스와 웹3.0 전문인력 상호교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인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전북대는 서강대가 개발 중인



서강대·전북대 교수들이 31일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원 원장은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공간이 연결·통합되고 신(新) 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플랫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고 있다”며 “전북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각 대학이 가진 교육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최근 수년간 전국적 제형화제와 메타버스 전주누리 협업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라진흥협회의 메타버스 교과목 지원사업 등 메타버스와 웹3.0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확충해 왔다. 올해는 글로벌융합대학 내 융합학부에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혼합현실(MR)과 가상융합세계 특화 콘텐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지털 창의인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21일부터 권역별 대면 진학상담 운영

본청·6개 교육지원청서 진학상담교사 38명 참여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신청 가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1일부터 본청 및 6개 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 대면 진학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학상담은 요일별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며, 도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부모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요일은 군산, 화요일은 익산·정읍, 수요일은 전주·김제, 목요일은 남원, 금요일은 전주에서 이뤄진다.

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다. 1인당 상담시간은 40분으로 신청시간 10분 전에 상담

장소에 방문 등록 후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은 10년 이상 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팀 교사 38명이 맡게 되며,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진학 컨설팅과 대학별 지원 전략 등 학생 맞춤형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진학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s://www.je.gokr/jinro)에 접속해 ‘대입 대면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상담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인 후 접수증을 출력하면 된다.

한편, 상담 신청은 4일부터 가능하

며, 상담 희망일 1주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희망일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운영일은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효선 학교교육과장은 “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권역별 진학상담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 정보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